

[사회]

‘마지막 수시 1학기’ 원서 접수 시작

광주대, 목포대 등 전국 대학 81개교가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 동안 인터넷과 대학 창구를 통해 2009학년도 대입 수시 1학기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가톨릭대, 건국대, 중앙대, 포항공대, 한양대 등 대부분의 대학이 14일 시작하고 고려대와 연세대 등이 15일, 목원대 등이 17일 원서 접수에 나선다.

수시 1학기의 경우 수능 성적과 상관없이 대부분 학교생활기록부, 면접·구술고사, 실기고사 등을 활용하며 학생부는 고교 2학년 2학기 성적까지만 반영된다. 특정 분야에 뛰어난 자질이나 재능이 있는 학생에게 더욱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원서접수는 인터넷이나 대학 창구를 통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인터넷 접수와 창구 접수를 병행하는 대학이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대불대, 동신대, 목포가톨릭대, 목

포대, 초당대, 호남대, 호남신학대 등 58곳,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는 대학이 고려대, 연세대 등 20곳, 창구에서만 접수하는 대학이 한체대 등 3곳이다.

인터넷 원서접수 서비스는 유웨이 중앙교육과 진학사에서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할 때는 부모 명의로 아닌 수험생 본인의 아이디로 접수해야 한다.

또 경쟁률을 발표하는 대학의 경우 막판까지 눈치작전을 하려다 접수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인터넷 접수 후에는 제출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대학간 복수지원이 가능하지만 1개 대학(산업대·교육대·전문대 포함)이라도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수시 2학기·정시·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수시 1학기 전형은 올해를 끝으로 없어진다. 내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수시 2학기 전형과 정시 전형만 실시한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새 집을 마련한 레니카씨가 새집 마당에서 두 딸의 손을 씻겨주고 있다. 뒤로 보이는 집이 새로 마련된 레니카씨 가족들의 새 보금자리. /위직량기자 jnwi@kwangju.co.kr

다문화 시대 ‘아름다운 나눔’

남편 사망에 갈 곳 잃은 담양 대덕면 이주여성 마을 주민·독지가 성금으로 새 보금자리 마련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두 자녀와 함께 갈 곳을 잃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주변의 도움으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담양군 대덕면 상운마을의 레니카 지반카야(32)씨. 레니카씨는 지난 11일 대덕면 관계자 및 마을 사람, 후원자들의 축복속에 입주식을 갖고 새 보금자리에 동지를 틀었다.

새 집은 지난해 남편을 잃고 두 딸 아이를 어렵게 키우며 무료 임대주택에서 살던 레니카씨를 따하게 여긴 대덕면 주민들과 독지가들의 후원금으로 지어졌다. 필리핀 출신으로 지난 1999년 결혼과

함께 담양에 정착하게 된 레니카씨는 지난해 10월 소값 하락으로 빚더미에 앉게 된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초등학교 2학년 생 수윤양, 6살짜리 이빈양 등 두 딸과 함께 마을 빈 집에서 어렵게 생활해 왔다.

이같은 사정이 알려지자 큰 딸이 다니는 만덕초교 자모회와 교직원 등 대덕지역 주민들이 4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한데 이어 광주시의 남장회(남성철물점 대표)씨가 1천650만원을 전담하는 등 2천여만원이 넘는 성금이 답지했다.

여기에 담양군이 레니카씨를 노후주택건립사업 대상으로 선정, 1

천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지난 5월 10일 집을 짓기 시작한지 2개월만에 건립 15평의 철골조립식 판넬 주택이 탄생하게 됐다.

레니카씨의 집이 지어지기까지는 마을 주민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장 김용각(68)씨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담장쌓기와 집터 다지기 작업에 스스로 참여했고 대형 냉장고와 컴퓨터, 가스렌지, 장롱 등 가구 및 가전제품은 독지가와 기업들이 힘을 보탰다.

레니카씨는 “어린 딸들을 데리고 살 일이 막막했는데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꿈과 희망을 갖게 됐다”며 “이들의 따뜻한 사랑을 잊지않고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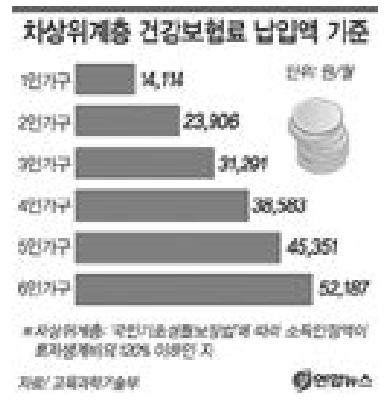
차상위계층도 기회균형선발 대상 포함

2009학년도 대입에서 도입되는 기회균형선발제를 위한 차상위계층 기준이 마련됐다.

1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돼 기회균형선발제 대상에 포함된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를 지칭한다. 또 이번엔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급여 지원사업, 자활급여 지원사업, 장애수당 지원사업, 차등보육료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교과부의 3·4세 아동교육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은 기회균형선발전형 응시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 기준에 포함되는 학생은 학교장 및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복지 급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신청결과 통보서 등)와 함께 대학에 제출하면 된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기회균형선발제=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 농어촌 및 전문계고 출신 학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전형을 실시하는 것.

Weather forecast for July 14th (Monday) and July 12th (Wednesday). Includes a map of Korea with weather icons for various regions and a table of high/low temperatures for each day.

못믿을 기상청... 시민들 분통

기상청의 잇따른 날씨 오보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 11일 주말·휴일(12·13일) 날씨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그러나 예보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주말인 12일 광주·전남은 담양 49mm, 광주 40.5mm, 화순 27.5mm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새벽 1시부터 비가 내렸으며, 천둥·번개가 심하게 내리치는 곳도 많았다. 휴일인 13일에도 구레 35mm, 안도 34mm, 광주 25mm 등 대부분 지역에서 폭우가 쏟아졌다.

한 12일 새벽 1시께 5mm 내외의 비가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날 새벽 5시에 들어서야 5~20mm가량 온다고 수정했다.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예보를 수정한 셈이다.

김성수(40·광주시 북구 문흥동)씨는 “기상청 예보만 믿고 가족 나들이를 갔다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에 흠뻑 젖었다”며 “여름철인 데다 주말 날씨를 시민들이 주의 깊게 보는 만큼 기상청에서 신중을 기해 상세한 예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지배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갑자기 수축되면서 북서쪽에 있는 장마전선이 밀고 들어와 비가 왔다”며 “여름 장마철은 기상을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계절이다”고 해명했다. /정필수기자 kps@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wak-na-Young Education' (국내영교육학) featuring a large title and contact information: 529-0090, starting July 4th.

Advertisement for 'Jeon Gongguk' (전공국어) with a phone number 7050 and a list of services.

Advertisement for 'Hapshin Young Education' (합신유아교육과정) with a phone number 18-322.

Large advertisement for 'Namgol-dang' (남골당) featuring a lamp icon and text about a 'Namgol-dang' (남골당) event, including contact numbers and dates.

Large advertisement for 'MAN2080' featuring a muscular arm holding a dumbbell, with text '강한 남'성의 힘! MAN2080!' and a phone number 080-361-7000.